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소상공인
임대로 감면 결의안 채택

부안군의회는 최근 제318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로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소상공인의 임대로 감면과 감면분을 소상공인에 지원' 차단체장의 감면분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임대로 인하액의 50% 세제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기 의원은 "코로나19 비대면 언택트 시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고강도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임대로 감면대책을 신속히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
시정 발전 단체협약 체결

정읍시와 전국공무직노동조합은 9일 2020년 정읍시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와 공무직노조는 9일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시측 교섭대표 최간순 총무과장과 노조측 교섭대표 이권로 위원장 등 교섭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 공무직원 319명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는 그동안 2년 주기로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정읍시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9월 7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실무교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문, 총직 등 106개 항, 부칙 7개 항에 합의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퇴직금 제도와 장기 재직 휴가,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보장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 본격

부안군, 위도 남측해상 80km² 해역 시범단지 건설 총 2조4000억원, 내년 실시계획 승인후 2024년 착공

국내 최대 규모의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안군 등에 따르면 전기위원회가 최근 열린 제249차 회의에서 한국해상풍력이 신청한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발전사업을 의결했다.

한국해상풍력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

발전이 공동 출자해 지난 2012년 12월 설립한 회사다.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은 부안 위도 남측해상에 실증·시범·확산단지로 나눠 건설되는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으로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정도로 정부의 핵심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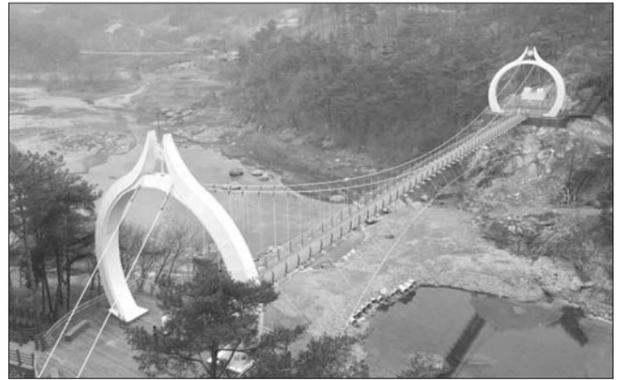
이번에 의결된 사업은 이미 조성된

60MW 규모의 실증단지의 후속 사업으로 위도 남측해상 80km² 해역에 건설하게 된다.

총 2조400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7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시범단지 이후에는 발전단지 확장사업이 계획돼 있다.

2GW 규모의 확산단지가 추가로 들어오면 224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얻을 수 있고 23조원 규모의 경제유발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절초 테마파크 출렁다리

주요 사업장·시설물 점검

정읍시, 19일까지 8개 점검반 운영... 시민 불편 해소 기대

정읍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요 개발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구절초 테마파크 출렁다리'와 '쌍화차 거리', '천사 히어로즈 복합 놀이시설', '산내면 잠금지구 신규마을' 등 최근 조성된 주요 사업장과 시설물 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20년 7월 이후 완공된 사업장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 선제적으로 조치,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폐기를 적지 여부와 시설물 오작동, 오염·파손 여부, 시설 운영 및 관리 마술 사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점검함으로써 민원 발생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직속 실과를 중심으로 사업부서와 협업해 43명으로 구성된 8개의 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 점검의 총괄 책임은 정읍시청 성장전략실(실장 이용관)이 맡게 되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과 건의 사항은 경미한 경우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타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과 앞으로의 보수방안 계획도 수립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에는 광속기 부시장이 동행해 지역 내 주요 시설물과 현장 사업장의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용관 실장은 "이번 현장 점검은 준공 직후의 신규 시설물과 사업장에 대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미리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라며 "시설물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만족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시설물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각종 시설공사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 점검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률 신청 기간 연장

오는 19일까지 신청 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정읍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1월 1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10만7,734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98.2%인 10만5,756명에게 지급했다.

이에 시는 모든 시민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장기출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설 명절을 맞아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시비



정읍시는 시비 110억원 예산이 투입해 시민들에게 제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10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지역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제2차 재난 기본소득이 가문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설 연휴 이전에 꼭 신청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준공 눈앞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추진

고창군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기존 매립시설 포화과 환경부의 쓰레기매립 제로화 정책에 따라 15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을 99%로 시운전 중이다.

소각시설은 2015년부터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 1월 착공했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1년여간의 진통 끝에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지난해 6월 공론화 합의결과 발표 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조례 개정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완 ▲매립장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정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

다. 현재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에 있어, 협의체가 구성되면 소각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2억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인력(14명)을 채용해 기술교육과 시운전을 실시하고, 타 지자체 소각시설 견학 등 근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처리와 투명한 관리로 환경과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수, 겨울철 화재예방 119릴레이 챌린지 동참

권익현 부안군수는 9일 박준배 김제 시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119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119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1월 9일 제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시작된 캠페인으로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자 진행 중이다.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

동보다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할 때"라며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소방시설물을 구비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다음 119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을 지명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